

김만덕 스토리텔링의 양상과 과제

이 창 훈*

차 례

1. 서론
2. 김만덕 관련 문헌기록 고찰
3. 김만덕 콘텐츠 스토리텔링 양상
4. 김만덕 스토리텔링 활성화 방안
5. 결론

1. 서론

21세기는 문화가 곧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시대다. 이미 각 지역의 지방 자치단체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유적 등을 콘텐츠로 개발하여 관광상품화하고 있으며, 지역을 배경으로 하거나 지역의 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드라마와 영화제작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제주도 역시 TV드라마 「올인」, 「태왕사신기」, 「인생은 아름다워」 등의 드라마 세트장과 촬영장소 등을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촬영장 대부분은 드라마의 종료와 함께 관광객 숫자 역시 빠르게 감소하고 만다. 단순한 세트장 건립이나 촬영장소의 제공만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 제주대학교 박사과정. mansto@hanmail.net

지속가능한 지역의 문화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지역과 밀착되어 있으며,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내재한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발굴·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상품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도의 다양한 콘텐츠 자원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이 김만덕이다. 김만덕은 유통업을 개척한 기업가, 상도(商道)를 실천한 경제인, 제주 도민을 구휼한 자선가, 그리고 조선조 여성의 굴레와 한계를 뛰어넘은 자유인 등으로 그려지는 선구자적 여성이다. 이러한 그녀의 전기적 사실들은 그녀를 성공한 삶을 산 여성, 진취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한 여성의 이미지로 소설, 만화, 전시, 드라마, 공연, 캐릭터 상품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개발되게 만들었다. 김만덕을 소재로 한 창작물들로는 김봉옥¹⁾, 이경채²⁾, 권무일³⁾, 윤수빈⁴⁾, 김인숙⁵⁾ 등의 소설과 오성찬⁶⁾, 강용준⁷⁾의 희곡작품과 최근에 종방된 KBS 대하 역사 드라마 「거상 김만덕」 그 외에 수십 종의 만화까지 다양하게 가공되어있다. 하지만 2010년 KBS를 통해 TV드라마로 제작된 「거상 김만덕」은 아쉽게도 흥행에 실패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김만덕의 이야기가 대중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데 실패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김만덕은 콘텐츠개발뿐 아니라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김만덕에 관한 연구는 현승환, 송병식, 손달래 등에 의해 논의되었다. 현승환⁸⁾은 김만덕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자세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김만덕을 문학 작품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 송병식⁹⁾은 김만덕을 성공한 경영인으로 파악하

-
- 1) 김봉옥, 「김만덕전 : 의병항쟁기 및 조봉호전」, 제주문화, 1990.
 - 2) 이경채, 「김만덕」, 나무처럼, 2010.
 - 3) 권무일, 「의녀 김만덕」, 문학과예술, 2009.
 - 4) 윤수빈, 「조선의 여성 상인 김만덕」, 창해, 2009.
 - 5) 김인숙, 「제주의 빛 김만덕 : 푸른 숲 역사 인물 이야기」, 푸른숲, 2006.
 - 6) 오성찬, 「넓더라 그 여자의 치마폭-김만덕전」, 「제주도」 제108호, 2004.
 - 7) 강용준, 「파도에 길을 묻다」, 「파도에 길을 묻다」, 지성의 샘, 2007.
 - 8) 현승환, 「실존인물 김만덕의 문학화 과정」, 『白鹿語文』 제20·21집, 백록어문학회, 2005.

고 있어 흥미롭다. 손달레¹⁰⁾는 출신은 다르지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했던 김만덕과 17세기 영국의 물 플란더스를 비교하여 두 사람의 진취적인 삶을 추적한다. 이를 통해 김만덕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제공해주었다. 그 밖에 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 2004년 『의녀 김만덕 활약상 자료조사 연구보고서』와 2010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추모 200주기 기념 김만덕 재조명』¹¹⁾을 발간하는 등 지금까지 발굴된 김만덕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만덕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김만덕에 관한 기존의 문헌기록들을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김만덕이야기(이하 ‘만덕이야기’로 통일)’의 문헌상의 변화양상과 소설, 만화, TV드라마 등 최근 작품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만덕이야기의 시대별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덕이야기의 효과적인 스토리텔링 방식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김만덕 관련 문헌기록 고찰

김만덕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1796년(정조 20년) 정조실록의 기록으로, 김만덕의 신분이 제주 기생이라는 사실과 그녀가 굶주리는 백성을 자신의 재물을 풀어 구했다는 사실, 그리고 상을 주려 하자 상 대신 금강산 유람을 원했다는 세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제주기생 만덕이 재물을 풀어서 굶주리는 백성들의 목숨들을 구하였다고 목사가 보고하였다. 상을 주려고 하자, 만덕은 사양하면서 바다를 건너 상경

9) 송병식, 「제주거상 김만덕에 관한연구」, 『經營論集』 제40권 제1/2호,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2006.

10) 손달레, 「아름다운 삶의 여정 : 물 플란더즈와 김만덕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14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8.

11) 문순덕·박찬식, 「추모 200주기 기념 김만덕 재조명」, 제주발전연구원, 2010.

하여 금강산 유람하기를 원하였다. 허락해 주고 나서 연로의 고을들로 하여금 양식을 지급하게 하였다.¹²⁾

「승정원일기」 정조20년 24일조에도 김만덕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 글은 당시 영의정이었던 채제공과 정조의 대화를 기록한 것으로 만덕에게 식량과 노자를 주어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도록 비변사가 그 일을 담당하는 내용이다.

채제공이 말하길, “탐라의 기녀가 재산을 바쳐 백성을 진휼하였는데, 상반기를 원치 않고 면천하기도 원하지 않고 오로지 왕성보고 금강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바, 그 원함에 따르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겨우 서울에 올라왔는데, 마침 심한 추위를 만나 이 집 저 집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만덕이 신을 찾아와서 울며 호소하는데, 그녀가 비록 천류이지만 그 의가 매우 높고 그 정이 매우 측은하므로, 유사(有司)에 분부하여 별도로 돌보아 주게 함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길, “탐라사람에 대해서는 조정에서 가엾게 여기는 것이 타도보다 더욱 각별하다. 그녀는 한 천한 기생으로서 의롭게 재물을 내놓아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는 데 힘을 썼으니 매우 가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소원 또한 기록하지 않아 이미 서울에 올라온 후에 어찌 도로에서 지내며 굶주리게 할 수 있겠는가. 비변사로 하여금 다시 그녀에게 물어, 바라는 대로 서울에 머물렀다가 봄이 온 후에 금강산으로 내려 보내 구경할 수 있게 한 다음 양곡과 돈을 지급하여 뱃길로 본향(제주도)에 떠나보냄으로써 (조정에서) 아무런 일도 함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짐의 뜻을 보여줄 수 있게끔 하라.”

이병모가 아뢰길, “신은 비변사에서 이번에 보고한 일 때문에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길, “이번 일은 미세한 일에 불과하다. 대신들이 재상의 시사(時事)로써 들어와 보고하는 것은 전후의 어떤 시한(時限)도 거론하지 말라. 경들은 그제야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물

12) 「정조실록」 정조20년 11월 25일. 김만덕기념사업회, 『김만덕 자료 총서Ⅱ』, 도서출판 각, 2008, 13쪽.

러갈 것을 명하였다.¹³⁾

다음날인 「승정원일기」 25일의 기록에는 “제주 기생 만덕에게 양식과 비용으로 쌀 1석과 금전 5냥을 지급하고, 봄이 올 때까지 양식을 지급”하라는 정조의 명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만덕을 “내의원에 충원시켜 행수 의녀로 임명하여 수의에 속하게 하여 각별히 돌보아주고, 금강산을 보고 돌아올 때 연로의 지방관들에게 분부하여 양식과 비용을 우대하여 지급하도록 하라.”¹⁴⁾는 기록도 보인다. 그러므로 현재의 만덕 기념탑 우측 벽면 동판에 새겨진 “정조는 서기 1796년 김만덕에게 의녀 반수의 직함을 제수하고 그녀를 궁중에 오게 하여 직접 그 공을 높이 칭송하다.”라는 기록은 전후관계가 뒤바뀐 것이다. 만덕을 한양으로 올리고자 그녀를 행수 의녀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한양에 와 있는 그녀에게 대접이 소홀함을 탓하여 행수 의녀로 임명해 편의를 도모해 준 것이다.

그 외에도 만덕에 관한 기록은 관찬사료인 「일성록(日省錄)」, 정약용의 「중동변(重瞳辨)」, 「탐라 기생 만덕이 진신대부로부터 송별시집을 얻다(題耽羅妓萬德所得摺紳大夫贈別詩卷)」, 채제공의 「설날 흑한에 출유하다(元春苦寒行)」, 「만덕전(萬德傳)」, 이재채의 「만덕전(萬德傳)」, 심노승의 「계섬전(桂織傳)」, 조수삼의 「만덕(萬德)」, 이회발의 「만덕전(萬德傳)」, 김희락의 「교지를 받들어 만덕전을 지어 올리다(奉教製進萬德傳)」, 이면승의 「만덕전(萬德傳)」 등 매우 다양하다. 이 같은 다양한 김만덕에 관한 기록은 대부분 만덕의 행적에 관한 기록으로,

- ① 만덕이 자신의 재산을 풀어 제주의 백성을 구휼했다.
- ② 상을 대신하여 한양과 금강산을 구경하고 돌아갔다.
- ③ 정조가 만덕을 행수의녀로 삼았다.

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김만덕에 관한 기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화 과정을 거치고 있음도

13) 「승정원일기」 정조20년 11월 24일조. 위의 책, 14~15쪽.

14) 「승정원일기」 정조20년 11월 24일조. 위의 책, 16쪽.

확인할 수 있다. 만덕이 기녀에서 양인이 되었다거나, 그녀가 김해 김씨의 딸이라는 사실이 대표적이다. 이는 그녀가 기녀신분으로 양민을 구휼했다는 사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측된다.

“기녀는 조선 초기부터 있던 제도인데 그 종류는 여악(女樂), 의녀(醫女), 창기(娼妓) 등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관기(官妓)를 뜻한다. 이들의 신분은 천인으로 국가에 소속된 공노비와 같은 존재였다. 기녀는 노비와 마찬가지로 한번 기적에 올리지면 천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가령 양반과 혼인하더라도 그 자식은 천자수모법(賤子隨母法)에 따라 아들은 노비, 딸은 기녀가 되었다. 기녀의 신분은 관아에 예속된 채 세습되었다. (...) 이를 벗어나려면 돈을 바치고 속량되는 경우가 아니면 평생 벗어날 수 없었다.”¹⁵⁾

또한, 김만덕은 1739년생으로 실제 이름도 존재하지 않았다. “여성들에게 이름이 부여된 것은 일제강점기 때 호적을 정리하면서부터이다. 여자 아이들은 대개 큰년, 셋년, 죽은년, 말젓년 등으로 불렸다.”¹⁶⁾ 따라서 만덕 역시 실제 이름이라기보다 기적에 이름을 올리면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이를 토대로 보면 그녀의 성인 ‘김(金)’씨 역시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김만덕의 성이 ‘김’씨였다는 기록은 채제공의 「만덕전」에 맨 처음 등장한다. 이후 김만덕이 양인이었다는 기록들은 여러 문헌에 보이나 이는 실제적인 검증이라기보다 채제공의 「만덕전」에 기댄 측면이 강하다. 김만덕의 본관이 ‘김해’임을 밝힌 것은 1812년 11월 21일 김만덕의 사망 이후 만들어진 「김만덕 묘비문」이다. 묘비문에는 “김만덕의 본은 김해 김씨요 곧 탐라의 양인 집안의 딸이다.”¹⁷⁾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1932년 김두봉의 『제주도 실기』 「여자 중 특이한 인물」편에서 “김만덕의 본관은 김해이다”¹⁸⁾라고 다시 언급된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 김

15) 현승환, 앞의 논문, 47쪽.

16) 위의 논문, 49쪽 참조.

17) 김만덕기념사업회, 「김만덕 자료총서 II」, 129쪽.

18) 위의 책, 118쪽.

만덕의 묘를 모충사로 이묘하며 기념탑을 세우는 과정에서 “김만덕은 서기 1739년 제주에서 김응렬의 외동딸로 태어나나...”라며 만덕의 아버지가 김응렬임을 새롭게 밝히고 있다. 이는 김태능의 「의녀 김만덕전」¹⁹⁾ 등에 나타난 기록을 옮겨 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김만덕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으로 최초의 기록은 채제공의 「번암집」 권55에 수록된 「만덕전」이다. 채제공은 이 글에서 만덕의 성이 김씨이며 탐라에 사는 양가집 딸이었음을 밝혔다.

만덕의 성은 김씨이니 탐라에 사는 양가집 딸이었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돌아가서 의탁할 곳이 없어서 기생의 집에 의탁하여 살았다. 조금 자라 나자 관가에서 만덕의 이름을 기안에 올렸다.²⁰⁾

“전의 일반적인 특징 이 도입부에 대상과 인물에 대한 성명, 출생, 가계 족보, 성격을 제시한 뒤, 신화처럼 탄생과정 같은 것도 없이 바로 사건행적이 나오”²¹⁾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채제공의 기록은 실재 김만덕의 성이 ‘김’씨였음을 사실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 증거가 당시 일반적인 여성들의 묘비형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김만덕의 묘비명이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여성 묘지명의 경우 여성의 개인성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남성의 경우 이름과 자호가 함께 기록되어 주체적인 개인으로 다루지만, 여성의 경우 아무개의 딸, 아무개의 처, 며느리로 표현함으로써 남성 뒤쪽에 숨겨진다. 살아있을 때 이름이나 당호는 사후 기록에서 배제된다. 이처럼 불출(不出)의 원리에 입각한 서술방식은 만덕의 묘비명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²²⁾ 이와 같은 김만덕 묘비명의 특징은 김만덕이 추앙받는 삶을 산 인물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수성이기보다 지배층의 통치수단의 결과물로 보인다. 실제 정조는 김만

19) 김태능, 「의녀 김만덕전」, 김만덕기념사업회, 『은광연세』, 도서출판 각, 2007, 19쪽.

20) 채제공, 「만덕전」, 『번암집』 권55. 위의 책, 45쪽.

21) 현승환, 앞의 논문, 45쪽.

22) 김만덕기념사업회, 『은광연세』, 위의 책, 142쪽.

덕의 행적을 기리고자 여러 권신들로 하여금 그녀의 행적을 기리는 글을 짓도록 했다.²³⁾ 또한 이채재의 「만덕전」, 심노승의 「계섬전」, 이희발의 「만덕전」, 김희락의 「교지를 받들어 만덕전을 지어 올리다」, 이가환의 「만덕을 탐라로 보내니 돌아갔다」, 박제가의 「만덕이 제주로 돌아갈 때 송별한 시」 등 동시대의 전(傳)의 형태를 띤 대다수 작품들에서도 만덕이 제주기녀라는 언급만 있을 뿐 그녀의 성씨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두 번째 이유이다.

이런 이유로 채제공이 만덕의 성씨에 관해 언급한 부분은 그가 만덕의 출생에 관해 공식적인 문헌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 했다가보다 만덕을 만나서 들은 내용을 기록했거나 혹은 채제공이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사실일 수 있다. 이는 채제공의 기록 이전에는 어디에도 만덕의 성씨에 관한 언급이 없고 동시대의 대다수 전에도 이런 내용이 언급되고 있지 않은 작품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자들에게 이름이 부여된 것이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였고, 실제 여염 아낙의 성씨는 기록에 거의 없으며, 반가의 여식 또한 족보에 기록될 때 ‘아무개의 처 김씨’ 정도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채제공이 「만덕전」을 지은 것은 만덕을 위로하고자 하는 뜻이 강했다. 그랬기 때문에 성이 없던 그녀를 위로코자 ‘김’씨라는 성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傳)은 애초에 구체적 인물의 주요 행적을 구심점으로 하여 서술되는 것 이외에 엄격하게 규범화한 어떤 제약도 없이 매우 자유로운 형식으로 성립되었다. 그리하여 필연적으로 전 양식은 공시적으로는 다양성을 지니며, 또한 통시적인 관점에서는 변화성을 떨 수밖에 없”²⁴⁾다. 또한 전

23) 김희락의 문집 「고식」에는 「교지를 받들어 만덕전을 지어 올리다」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있다. 김희락은 이 글을 통해 만덕을 “협사전(俠士傳) 가운데 넣어둔다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다.”(김만덕기념사업회, 「김만덕 자료 총서Ⅱ」, 도서출판 각, 2008, 79쪽.)고 찬양한다. 김만덕의 구휼활동이 1795년의 일이니 그가 교지를 받들어 만덕전을 지어 올린 것은 정조대의 일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정조가 교지를 내려 많은 대신으로 하여금 만덕전을 짓도록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정조가 만덕의 덕행을 널리 알려 이를 치세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은 “자료의 취사 선택으로 말미암아 전기는 구성면에서 자연히 허구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엔 작가가 대상 인물의 일관된 생애와 성격을 그려내기 위해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사실까지도 주저없이 사용하여 허구의 진실은 더욱 확대된다.”²⁵⁾ “실제 인물의 기술, 재현하는 데서 출발하여 점차 허구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소설발생의 계기가”²⁶⁾ 된 것이 전(傳)이다. 결국 채제공의 「만덕전」은 사실과 허구가 결합된 ‘전(傳)’의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작품으로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허구인지 구분해 내기 어렵다. 그러므로 동시대의 다른 문헌과 함께 살펴봐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①만덕은 제주도 기생이다. ②재화를 풀어 기민을 구제했다. ③목사의 장계를 접하고 왕이 포상을 하고했다. ④포상으로 금강산 유람을 희망하여 이를 수락했다. ⑤입경한 후 여행의 편의를 도모코자 정조가 내의원 행수의녀직을 만덕에게 하사 했다 정도이다. 이후의 문헌기록들은 대부분 채제공의 「만덕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사실관계의 기록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스토리텔링의 측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위에 언급한 다섯 가지 사실기록에 채제공의 「만덕전」이 더해져 현재의 ‘만덕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으로 전해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에 허구적 사건들이 결합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문헌자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만덕을 의녀(義女)로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심노승의 기록만이 이와 다르다는 점이다.

지난해 제주기녀 만덕이 곡식을 내어 진흙하니 조정에서는 그녀를 예국의 우두머리 종으로 삼고 금강산 유람까지 시켜 주면서 말과 음식을 제공하였

24) 광정식, 「전문학의 장르적 성격과 소설적 한계」, 『새얼어문논집』 제4집, 새얼어문학회, 1988. 215쪽.

25) Alan Shelston 지, 이경식 역, 「전기문학」, 『문학비평총서』 16, 서울대출판부, 1979. 현승환, 위의 논문, 45쪽 재인용.

26) 광정식, 앞의 논문. 216쪽.

으며, 조정의 학사들로 하여금 그의 전까지 짓도록 명하여 규장각의 여러 학사들을 시험하였다. 지난날 내가 제주에 있을 때 만덕의 얘기를 상세하게 들었다. 만덕은 품성이 음흉하고 인색해 돈을 보고 따랐다가 돈이 다하면 떠나는데, 그 남자가 입은 바지저고리까지 빼앗았으니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남자의 바지저고리가 수백 벌이 되었다. 매번 쪽 늘어놓고 햇볕에 말릴 때면, 군(郡)의 기녀들조차도 침을 뱉고 욕하였다. 육지에서 온 상인이 만덕으로 인해 꽤 망신하는 이가 잇달았더니 이리하여 그녀는 제주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 형제 가운데 음식을 구하는 이가 있었는데 돌아보지도 아니하다가 도에 기근이 들자 곡식을 바치고는 서울과 금강산 구경을 원한 것인데, 그녀의 말이 웅대하여 불 만하다고 여겨 여러 학사들은 전을 지어 많이 칭송하였다.

내가 「계섬전」을 짓고 나서 다시 만덕의 일을 이와 같이 덧붙인다. 무릇 세상의 명(名)과 실(實)이 어긋나는 것이 이러한 것이 많음을 혼자 슬퍼하니 계섬의 이른바 만나고 만나지 못하고 하는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²⁷⁾

이에 대해 김영진은 당파성이 은연중 개입되어 소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쓰고 남인들에 의해 찬양된 만덕에 대해 비판적으로 쓴 것으로 추정²⁸⁾했으나, 만덕의 행적에 대한 부분은 심노승이 제주에서 직접 들은 것을 기록한 것으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심노승이 들은 만덕의 행적은 여타 기록들이 채제공의 「만덕전」에 기대고 있는 것과 달리 심노승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심노승의 기록이 작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을 폄하하거나 훼손시키기 싫다는 정서적인 반감과 김만덕을 지역의 대표인물로 키우고 있는 김만덕 기념사업회의 시각이 반영된 결과물로 보인다.

그러나 다양하고 개성적인 이야기를 원하는 현재의 콘텐츠 시장에서 천편일률적인 내용만을 반복 재생산해 내는 현재의 스토리텔링으로는 김

27) 심노승, 「계섬전」, 『효전산고』 권7. 김영진, 「효전 심노승 문학연구-산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44쪽 재인용.

28) 김영진, 위의 논문, 45쪽 참조.

만덕을 지역의 대표적 콘텐츠소스로 활용하기 어렵다. 심노승의 기록은 천편일률적 찬양 일색인 만덕이야기에서 벗어나 인간 김만덕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개성적인 인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흥미롭고,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김만덕을 효과적인 콘텐츠소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서 심노승의 기록은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이처럼 만덕에 관한 고문기록은 심노승의 기록을 제외하곤 대부분 만덕의 '기민구휼'이라는 행적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만덕을 예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3. 김만덕 콘텐츠 스토리텔링 양상

3.1. 전(傳)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만덕에 관한 기존의 문헌기록들은 심노승의 기록을 제외하곤 천편일률적인 찬양 일색이다. 이는 제주기민들을 구휼했던 김만덕의 행적에 채제공의 「만덕전」이 더해지며 미화의 과정을 거치고, 이를 치세의 도구로 활용²⁹⁾한 정조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후의 기록들은 채제공의 「만덕전」에 조금씩 첨언된 것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이 전(傳)의 형태로 전해진 것이다.

29) “관료들에게 만덕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담론을 가능케 한 인물이었던 셈이다. 때문에 조정에서는 학사들로 하여금 만덕의 전을 짓게 하였고, 많은 관료들은 만덕을 위한 글을 지었다.”(김준형, 「만덕이야기의 전승과 의미」, 김만덕기념사업회, 『은광년세』, 앞의 책, 266쪽)는 부분이나 “서울에서 벼슬을 하는 선비들은 조선조 통치 윤리인 유교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인데 이들도 만덕을 칭송하는 헌사를 앞다투어 지어주었다. (...)유교선비로서 정절이데올로기에 미추어 만덕에게 최고의 찬사를 한 것”(김경애, 「김만덕 삶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해석」, 위의 책, 315~316쪽) 등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전과 소설의 형태로 기록된 작품들 중 최근작으로 관심이 가는 것이 김태능의 「의녀 김만덕전」,³⁰⁾ 정비석의 「제주기 만덕」,³¹⁾ 김봉옥의 「구원의 여인 김만덕」,³²⁾ 양중해의 「김만덕의 자선」³³⁾ 등이다. 김태능의 「의녀 김만덕전」은 내용에 있어 이전의 것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다른 기록들에는 거의 없던 김만덕의 가계(家系)에 관한 사항이 비교적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어 특이 하다. 김태능은 이 글에서 김만덕의 본관이 경주 김씨인데 김만덕의 비문에는 김해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는 김해 김씨 혈통의 유래와 관계된다는 주장³⁴⁾을 펴고 있다.

김해김씨는 대별하여 혈통이 상이한 세 계통이 있다. 하나는 수로왕의 후손인 김해김씨(속칭 선김)요 다음은 신라 경순왕의 후인 김녕군 김시홍(김녕 김씨 시조)의 후손 중의 김해 김씨(속칭 후김)파요, 또 다음 한 계통은 임진왜란 때 귀화한 일본인 사가야의 후손 김해 김씨인 것이다. 현재 제주 도내의 대성인 경주 김씨(속칭 가목관 김씨)는 상기한 김시홍의 후손 익화군 김익찬의 자 김검용(입도조)의 후손들인데 본시 본관은 김녕 김씨였다. 김녕과 김해는 옛적에는 오랜 유래가 있는 동명이므로 김녕 김씨 중에는 김해로 호관하는 파도 있게 되었다.(전국적인 현상) 그래서 수로왕 후손과 경순왕 후손의 두 김해 김씨 씨족들은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상기한 바와 같이 선김과 후김으로 구별되어 오기는 하나, 세월이 흘러가고 후손들도 많이 불어나므로 이런 정도의 구별만으로는 혼동을 막을 수가 없으므로 제주에 주거하는 김녕 김씨와 같은 입도조의 후손인 김해 김씨들만은 국왕의 윤허를 받아 현종12년(1846년) 선씨의 본관인 경주로 복관하였다. 이런 역사적 관계로 미루어 보아 현재 만덕의 동기의 후손들이 경주 김씨이므로 만덕은 분명히 김

30) 김태능, 「의녀 김만덕전」, 『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1982. 김만덕기념사업회, 『은광연세』, 도서출판 각, 2007.

31) 정비석, 「제주기 만덕」, 『명기열전』 6, 신정사, 1981. 김만덕 기념사업회, 위의 책.

32) 김봉옥, 「구원의 여인 김만덕」, 『제주도』, 1989. 김만덕 기념사업회, 위의 책.

33) 양중해, 「김만덕의 자선」, 『제주여인상』, 1998. 김만덕 기념사업회, 위의 책.

34) 경주김씨 익화군 제주파 족보에는 이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경주김씨 익화군 제주파 십오세손 입도조 검용공 십사세손 석우조문중회, 『경주김씨 익화군 제주파족보 1권』, 1995. 74~76쪽 참조)

닝 김씨계의 김해 김씨(후김)였던 것이다.³⁵⁾

김태능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이 확실한 고증에 의해 기록된 문헌이라 보기는 어렵다. 때문에, 실제 김만덕의 족보가 위와 같은 이유로 김해 김씨에서 경주 김씨로 바뀌게 된 것인지, 아니면 앞서 검토한 것과 같이 원래 김만덕의 본관이 김해 김씨가 아님에도 채제공의 「만덕전」에 채제공이 김만덕을 위로하고자 ‘김’이란 성을 임의로 지어 주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혼동인지 알 수 없다. 또한, 그녀가 양자로 들인 자식들의 성씨가 김씨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구체적 가계 기록을 통해 ‘만덕이야기’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구체성을 띄게 변모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이 작품에는 탐욕스럽고 호색한인 목사와 만덕을 대비시켜 만덕을 더없이 정숙하고 기품있는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때 제주에 탐욕과 호색의 목사가 부임되어 왔다.

그는 지방민으로부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기회 저런 기회를 이용하여 구하기 어려운 우항을 비롯하여 귀중한 각종 약재와 진주와 준마들을 슬금슬금 거두어 드려 그의 탐욕을 만족 시키는 일방, 탐라의 명기 만덕도 정복하여 자기 손아귀에 넣어보려고 흥계를 세웠다. 그래서 그는 심복 부하를 시켜 만덕에게 수청 들도록 피어 달래게 하고, 만일 불응할 때는 이리이리 해서라도 기어코 그를 동천으로 데려오라고 일러 보내었다.³⁶⁾

이제 다시 기생인 만덕의 인품과 몸가짐을 살펴보면, 그는 비록 노류장화의 신세인 천기였으나 불타는 정욕의 청춘시절에도 흥분에서 극력 자신을 억제하였고, 부귀와 권력의 유혹 속에서 그는 힘써 부덕을 지키려 노력했으며 정절을 또한 생명과 같이 중히 여겼다.³⁷⁾

35) 위의 책, 39~40쪽.

36) 김태능, 앞의 책.

37) 위의 책.

이러한 김만덕의 묘사는 상대적으로 만덕으로 하여금 자신의 수청을 들게 하려는 지방수령을 타락한 호색한과 악당으로 강조해 비치게 한다. 이 또한 만덕을 영웅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의 내용은 저작들과 비슷하다.

김봉옥의 「김만덕전」에서 이전 작품들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만덕이 세우는 세 가지 장사원칙이다.

만덕은 장사하는 데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이익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파는 것이요. 둘째, 적절한 매매가격, 셋째, 정직한 신용분위였다.³⁸⁾

만덕이 세웠다는 이 세 가지 원칙은 뒤에 오성찬의 희곡 「넙더라, 그녀의 치마폭-김만덕전」에 활용된다. 그 외 만덕이 내의원 반수가 된 원인을 “평민으로서는 임금을 배알할 수 없으므로 만덕에게 예절할 수 있게 하는 조치”³⁹⁾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밝혀놓은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결과물이다.

양중해의 「김만덕의 자선」은 김만덕의 생애를 일괄하고 난후, 만덕이 기녀가 되는 과정과 기적에서 벗어나는 과정, 상인으로 부를 축적하고 기민구휼에 나서는 과정을 소설형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작품에는 만덕이 '한매'라는 퇴기의 집에 5,6년을 기거하다 17·8세에 기적에 오르게 된 사연과 양가의 딸로 기녀생활에 강한 저항을 느끼는 것으로 묘사⁴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후일 만덕이 기녀신분을 벗어나게 되는 개연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이나 밀도는 다소 떨어진다. 이처럼 만덕을 다룬 전(傳)들 대부분이 만덕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녀신분의 해방과 거상으로의 성장, 기민구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8) 김봉옥, 앞의 책, 123쪽.

39) 위의 글, 135쪽.

40) 양중해, 앞의 글, 161쪽 참조.

3.2. 소설

구술과 전의 형태로 전해지던 ‘만덕이야기’가 현대 소설 형식으로 가공되기 시작한 것은 정비석의 『명기열전』(1977, 이우출판사)부터다. 『명기열전』 이후 현재까지 ‘만덕이야기’를 바탕으로 소설화된 작품⁴¹⁾만도 윤수민의 『김만덕-조선의 여성상인』, 권무일의 『의녀 김만덕』 등 다양하다. 이들 소설작품은 2009년을 전후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2010.03.06~2010.06.13일까지 KBS를 통해 방송된 <거상 김만덕>의 흥행을 예상하여 급조된 작품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명기열전』은 1976년부터 정비석에 의해 조선일보에 4년간 연재된 작품이다. 정비석은 작품의 첫머리에 채제공의 「만덕전」을 읽고 당시 영의정인 채제공으로 하여금 진기를 쓰게 만든 제주 기생 만덕에 대한 궁금증으로 「제주기 만덕」을 쓰게 되었다고⁴²⁾ 작품의 창작 동기를 밝히고 있다. 그의 작품은 당대의 유명 작가답게 사건 진행, 당위성, 개연성에서 이전의 전(傳)들과 다르게 구체적이고 흥미롭다.

“목사는 웬일인지 만덕이에게 비천한 기생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도리어 인품이 고상한 현부인과 같은 용모와 체취를 느끼기도 하였다.”⁴³⁾ “만덕은(...) 스스로 정결한 기녀로서 처신할 것을 굳게 다짐하였다.”⁴⁴⁾ “만덕 객주집은 제주도과 육지의 물자를 교역하는 곳이 되자 육지의 물건을 손쉽게 얻을 수 있고 또 제주 물건도 정당한 시세로 팔 수 있으므로 모두가 만덕의 뛰어난 장사솜씨에 감탄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⁴⁵⁾ 등

- 41) 윤수민, 『김만덕-조선의 여성상인』, 창해, 2009.
 권무일, 『의녀 김만덕』, 문학과 의식, 2009.
 홍종화, 『조선최초 여성 CEO 김만덕』, 주류성, 2009.
 이수광, 『소설 김만덕』, 워스비전, 2010.
 이성길, 『숨비소리-조선의 거상신화 김만덕』, 순, 2010.
 김영미, 『김만덕』, 산수야, 2010.
- 42) 위의 책, 43~44쪽.
 43) 김태능, 앞의 책, 20쪽.
 44) 김봉옥, 앞의 책, 120쪽.
 45) 위의 책, 124쪽.

기존의 구체적인 사건 없이 막연하게 기술되어 있던 부분을 이 작품에서는 개연성 있는 에피소드로 새롭게 구성한 것이다. 이렇게 사건의 개연성 확보와 새로운 에피소드를 삽입함으로써 만덕의 행위 대부분이 정당성을 확보하게 한다. 이를 살펴보면 <표1>과 같다.

	에피소드	작품 내적 효과
①	사냥터에서 화살 맞은 노루를 살려줌	생명존중사상의 표현
②	만덕이 신관 사또의 수청을 거절	당찬 기개의 표현
③	고선홍과의 사랑	여인으로서의 정절의식 표현
④	구체적인 부의 축적과정	재화 축적과정의 정당성 표현
⑤	기민구휼의 과정	애민사상의 표현

<표 1> 제주기 만덕의 구성과 에피소드의 작품 내적 효과

기존의 기록과 전들이 그랬던 것같이 만덕에 대한 영웅화를 위한 설정 역시 이 작품 곳곳에 등장한다. 만덕이 부를 축적하는 사재기 과정이 단골 상인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덕행의 결과로 미화되거나, 우황의 사재기 과정이 만덕의 재능으로 묘사되고 있는 부분, 실생활에서 검소한 생활을 한 소박한 여성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 등이 그러하다.

설날 보름쫄 지나간 어느 날 목포에서 단골 거상 하나가 필목과 솜과 기명을 한 배 가득 싣고 왔다. (...)

“그러잖아도 연말 대목을 보려 이런 물건을 가지고 떠났는데, 도중에서 풍랑을 만나 도착하기가 20일이나 늦었소이다. 2월 초에는 우리집 아이를 장가보내기 때문에 나는 빨리 돌아가야 하겠으니, 이 물건을 속히 처분하도록 힘써 주시오.” (...)

만덕은 단골손님의 편의를 도모해 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다. (...)

“좋습니다. 아주머니가 맡아주신다면 이백 냥은 손해를 볼 테니 천 냥에 맡아주시오.”

(...) 만덕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지못해 그 물건을 맡아버렸는데, 그해 가을에 삼만 일대의 목화가 대홍작이어서 그해 겨울에는 필목과 솜 값이 다섯

배로 뛰어 올랐다. 그리하여 만덕은 일약 만 냥 부자가 되었다.⁴⁶⁾

제주도에는 소가 많아서 우황 같은 것은 어디를 가도 흔했다. 우황이란 소의 쓸개에 병으로 인해 생기는 특이 물질인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도에서는 우황같은 것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우황을 서울에서는 녹용이나 인삼보다도 더 귀한 약재로 여겼다.⁴⁷⁾

이 작품에서 기존 작품에 없던 흥미로운 부분은 작가 정비석이 '만덕'의 이름을 나름의 해박한 지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대목이다.

신라의 진흥왕은 음악을 존귀하게 여기는 까닭에 그는 우륵으로 하여금 제자들을 길러서 가야국의 음악을 길이 계승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우륵은 많은 제자들을 길렀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제자 세 명이 있었으니, 계고는 가야금에 출중하였고, 대나마 범지는 노래에 출중하였고, 태사 만덕은 춤에 출중하였다. 그래서 그 당시 '만덕'하면 누구나 춤을 연상했던 것이다.⁴⁸⁾

이와 같은 역사적인 고증은 '만덕이야기'에 또 다른 신화성을 가미하며 이야기를 구체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정비석의 『제주기 만덕』은 내용에서는 기존 만덕이야기의 정형성을 벗어나지 못하나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만덕이야기'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만덕의 이름에 관한 새로운 유래를 내놓으면서 스토리텔링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의 작품으로 2009년에 발행된 윤수빈의 『조선의 여성상인 김만덕』이 있다. 이 작품은 발표시기로 보아 TV드라마 「거상 김만덕」의 후광을 기대하고 기획된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 김만덕을 '나'로 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회상형태로 시작되는 특징이 있다.

열한 살, 그러니까 내가 눈앞의 계집아이만 하던 시절에 아는 난생처음

46) 위의 책, 82~84쪽.
 47) 위의 책, 84쪽.
 48) 위의 책, 55쪽.

정의현 바닷가 마을 동복리를 떠났다. 부모를 따라 목안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였다.⁴⁹⁾

이 작품에서도 만덕의 아버지는 장삿길에 바다에 빠져 죽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뒤에 검토할 강용준의 회곡 「과도에 길을 묻다」의 설정과 흡사하다. 그 밖에 이 작품 곳곳에는 기존 전들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들었던 제주도에 대한 작가 나름의 해박한 지식을 곳곳에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뱀은 탐라 땅에 넘친다. 탐라에 많은 세 가지가 바람, 돌, 여자라지만 그건 틀린 말이다. 여자인 내가 보기엔 탐라의 삼다 마지막에 들어가야 할 건 뱀이다. 산이 메슥지고 안개와 비구름이 잦은 이 땅엔 축축하고 그늘진 어디나 뱀이 있다. 그래서 뱀 신의 이야기도 신당도 많다.⁵⁰⁾

제주는 일선의 섬이라 인구유지를 위해 출륙금지령이 내려있어, 육지의 객상들이 우리에게 부족한 필수품, 즉 쌀과무명, 삼베, 소금, 무쇠 등을 가지고 와서 팔고 우리의 토산을 사간다.⁵¹⁾

“하지만 예부터 우리 섬에선 군번수가 모자라면 건강한 처녀까지 수자리에 나서길 마다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⁵²⁾

하지만 이러한 작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 역시 과거의 전에서 보여주던 행위중심의 이야기 구조를 답습하는데 그치고 있다. 만덕을 ‘나’로 설정하여 그녀의 내면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나름의 해박한 지식을 통해 제주도를 다각도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18세기 제주도의 현황과 역사적, 시대적 상황 속에서 김만덕을 조명하는데 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대다수의 작품들과 이경재, 권무일 등 비교적 최

49) 윤수빈, 앞의 책, 19쪽.

50) 위의 책, 202쪽.

51) 위의 책, 213쪽.

52) 위의 책, 310쪽.

근의 작품들 대다수가 드라마 <거상 김만덕>으로 인해 급조된 것들로 기존의 '기녀신분 극복-거상으로의 성장-기민구휼'이라는 행위중심의 내용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진일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나마 2006년에 발표된 정창권의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 되어 날아가리』⁵³⁾가 눈에 띄는데, 이 작품은 만덕의 상인으로서의 면모가 강조되고 있다. 작품의 발표시기가 2006년인 점을 감안하면 이 작품이 이후 발표된 대다수 만덕관련 창작물이 만덕의 상인으로서의 면모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소설 형식과 논문 형식을 뒤섞은 중간 형태의 창작물로 본격적인 소설이라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이를 만화화한 『조선 최초 여자거상 김만덕』과 함께 비교해 보는 것으로 대신하려 한다.

3.3. 만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만덕이야기의 대부분은 우리의 설화를 소개한 단편집에 간간히 수록⁵⁴⁾되었다. 그러던 것이 2010년을 전후해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면서 본격적인 학습만화로 출간되기에 이르렀다. 이 또한 드라마의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본격적인 학습만화 작품으로 안형모, 박산하, 미디어S, 동화창작연구회의 작품⁵⁵⁾을 들 수 있다. 이중 박산하⁵⁶⁾의 만화 『조선최초 여자거상 김만

53) 이 작품은 김만덕기념사업회가 주관한 드라마 시나리오 공모전(2007)에서 당선된 작품으로 2010년 KBS에서 드라마화된 『거상 김만덕』의 바탕이 되었다.

54) 남석기, 『마고할미의 욕심』, 능인, 1994.

이현주·장수하늘소, 『빛나는 우리문화유산』, 배동바지, 2006.

이광렬, 『조선과 함께한 27인의 여걸』, 흰돌, 2007.

박정희, 『나는 당당하게 살리라』, 한희란, 2005.

이형진, 『큰 부자들의 경제이야기』, 랜덤코리아하우스, 2005. 등

55) 안형모, 『나눔을 실천한 거상 김만덕』, 학산문화사, 2010.

미디어S, 『나눔과 배품의 삶으로 조선을 감동시킨 거상 김만덕』, 흥진P&M, 2010.

동화창작연구회, 『조선 최고의 거상 김만덕』, 꿈꾸는 사람들, 2010.

박산하, 『조선최초 여자거상 김만덕』, 주니어김영사, 2010.

덕』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박산하의 작품 원작이 정창권의 소설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 되어 날아가리』를 원작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창권의 소설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 되어 날아가리』는 이전 만덕이 야기의 전형성에서 조금 벗어나 그녀의 상인으로의 면모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만덕의 '기녀신분의 극복-거상으로 성장-기민구휼'이라는 행위중심 이야기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만화 속 캐릭터는 대부분 선·악의 대결 구도를 중심으로 주인공, 조력자, 적대자 등이 결정된다. 만화 속 캐릭터들은 소설에서보다 성격을 단순화시키거나 강조시켜 독자들에게 이를 각인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를 위해 만화는 주인공 중심으로 플롯이 짜이고, 주인공의 영웅화에 심혈을 기울인다. 강력하고 영웅적인 면모를 갖춘 주인공 이미지를 확립하는 것이 작품의 성공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설에서 묘사만으로 표현된 인물을 캐릭터로 형상화하여 보여준다는 점에서 소설의 인물과 만화 캐릭터는 차이가 있다.”⁵⁷⁾ 이처럼 만화에서는 소설보다 인물의 성격이 단순화되고 평면화되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의 대결 역시 극명하게 표출된다. 박산하의 만화에서도 만화적 재미를 위해 동문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객주 부목한과 김만덕의 대결을 이야기의 중심에 놓고 있다. 선악 중심의 인물 구도를 살펴보면 <표2>와 같다.

선	악
김만덕	부목한
문명	강여일
천태남	애랑
김한태	이방
언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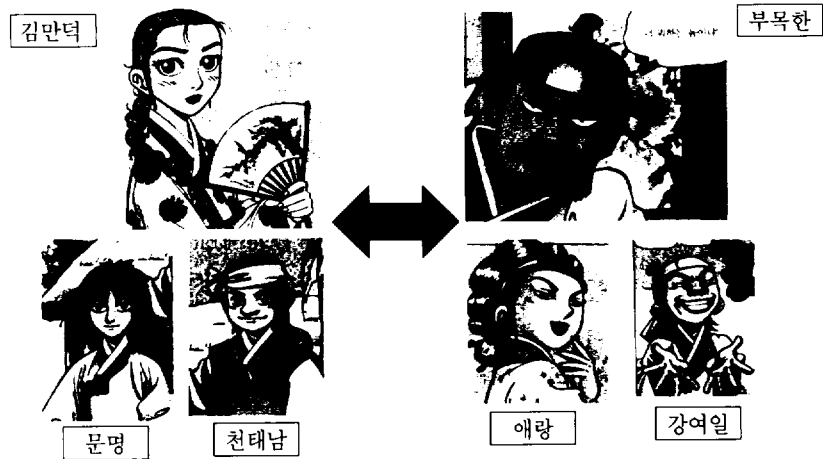
<표 2> 박산하 만화의 인물 구도

56) 박산하는 1992년 만화잡지 주간 『아이큐 점프』에 대표작 『진짜사나이』를 연재하면서 100만 부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인기작가 중 한 사람이다.

57) 이창훈, 『소설의 만화 변용 양상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14쪽.

이 만화에서 김만덕은 조력자인 문명, 천태남, 김한태의 도움을 받아 완벽한 영웅으로 탄생한다. 반면 동문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부목한은 김만덕과 사사건건 부딪치며 훼방꾼 노릇을 한다. 그러다 결국 악행이 드러나며 이방과 함께 옥에 갇힌다. <그림1>의 주요 등장인물을 보면 김만덕과 맞서는 부목한과 강여일, 애랑은 그 표정이나 얼굴을 회화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김만덕과 문명, 천태남 등 주인공과 주인공의 조력자들은 근엄하고 진중한 표정을 보이고 있어서 이미 시각적으로 형상화된 캐릭터에 있어서도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산하의 만화는 이전 정비석의 소설보다 선악 대결구도를 중심으로 흥미롭고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널뛰듯 전개된다는 인상이 강하다. 이는 한정된 지면이라는 한계도 있겠으나 원작인 정창권의 소설이 완벽한 소설 형식을 띠지 않고 자료중심으로 이야기를 늘어놓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만화 『조선최초의 여자거상 김만덕』 주요인물과 대결구도

소설을 만화화할 때 일반적으로 플롯의 재구성, 캐릭터의 입체화, 화자 소멸과 시점변화, 서술의 시각화, 장면구성과 가독성 향상 등의 변화가 일

어난다.⁵⁸⁾ 박산하의 만화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일어난다. 에피소드별로 이를 살펴보면 우선 만덕의 어린 시절을 4페이지로 짧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만덕의 상인으로서의 면모에 집중하기 위해 가독성을 높일 목적으로 축약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만덕이 기적에서 물러나 양인이 되는 과정은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 또한 주인공인 만덕을 영웅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다만, 만덕의 아버지가 양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적에서 빼줘야 한다는 작품의 주장은 정비석의 소설작품보다 개연성이 부족하다. 앞선 문헌고찰에서 살펴보았듯 기아에 허덕이던 양인의 여식 중 상당수가 기적에 이름을 올린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양인으로 신분을 회복했던 것은 아니다.

박산하의 만화가 기존의 만덕이야기를 작품화한 대다수의 만덕전과 정비석의 「제주기 만덕」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그녀의 상인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비석의 소설에서도 이와 같은 면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비석의 작품이 그녀의 기녀생활과 상인생활, 그리고 기민 구휼과 금강산 유람에 나선 만덕의 모습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있는 것에 비해, 만화에서는 만덕의 상인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만덕의 기민구휼의 문제는 <그림 2>와 같이 축소되어 나타난다. 금강산 유람장면 역시 마찬가지다.

이 두 사건의 축약은 원작인 정창권의 소설 탓이기도 하지만 과거 작품들보다 최근 작품들에서 상인으로서 만덕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뒤에 다룰 드라마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으로 만덕이야기의 특징이 그녀의 기민구휼과 신분상승에서 상인으로서의 면모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야기의 초점이 변화할 뿐 '만덕이야기'의 행위중심 이야기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설과 전의 형태로만 전해지던 만덕이야기가 만화라는 새로운 미디어로 변화하고 있으나 이야기 구조는 변화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58) 위의 글, 28~96쪽 참조.



<그림 2> 박산하, 『조선최초의 여자거상 김만덕』, 178~79쪽.

3.4. 희곡

김만덕을 희곡화한 작품은 강용준의 희곡작품 『파도에 길을 묻다』와 오성찬의 작품 『넙더라, 그 여자의 치마폭 - 김만덕전』이 있다. 강용준은 전문희곡작가로 “시종 제주도의 역사나 설화, 토속 문화와 생활정서, 제주 방언을 연극의 중심에 놓고 그 연극성을 실험”⁵⁹⁾해 온 작가이다. 총 2막 8장으로 구성된 강용준의 작품 『파도에 길을 묻다』는 1막에서 기녀신분의 해방, 상인으로서의 성공과정이 다뤄지고, 2막에선 기민 구휼의 과정이 중심을 이룬다. 이와 같은 극의 구성역시 만덕의 행적중심이야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59) 김성희, 『연극에 길을 내다』, 강용준, 『파도에 길을 묻다』, 지성의샘, 2007, 361쪽.

이 작품에 새롭게 나타나는 부분은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던 만덕의 오빠 만재와 만덕의 정인인 순무어사 도원이 새롭게 등장하고 만덕의 아버지가 상인이었다는 설정을 통해 만덕이 후일 거상이 되는 개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정도이다.

만덕 부친은 전라도를 오가는 중개상이었습니다. 장사를 할 때는 집안에 여유도 있고 참 좋았습니다. 헌데 어느 날 큰돈을 벌 요량으로 온 재산을 저당 잡혀 배를 빌려 육지로 나갔습니다. 허나 과욕이 화를 부른다고, 물건 잔뜩 싣고 오던 중, 태풍 만나 좌초하는 바람에 부친도 재산도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⁶⁰⁾

기녀가 된 동생을 부끄럽게 여기는 만재와 갈등하던 만덕은 도원의 도움을 얻어 기적에서 풀려난다. 그러나 그 과정은 대부분 생략되어 도원과 만덕의 청원에 의해 목사가 만덕을 기적에서 풀어 주었다고 추측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원 만덕아, 드디어 네 소원이 풀리었다.

만덕 예? 무슨 말씀이옵니까?

도원 양인의 신분을 되찾게 되었던 말이다.

만덕 그게 참말이옵니까?

도원 방금 목사께서 결정을 내리셨다.

만덕 고맙습니다, 서방님 다 서방님이 애써 주신 덕분인가 하옵니다.

도원 아니다. 여자의 몸으로 가정을 일으키고 불쌍한 이웃들을 돌보겠다는 가장한 뜻을 목사가 높이 산거야.⁶¹⁾

이 작품에는 이렇게 이미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 만덕의 기녀 신분 해방의 과정을 축소시키고 대신 상인으로 성공한 만덕이 객주의 모략에 걸

60) 위의 책, 169쪽.

61) 위의 책, 174쪽.

려 고초를 치르는 새로운 사건을 삽입되어 있다. 이 사건을 통해 만덕이 돈을 벌 과정이 그녀의 성실과 근면의 결과물임이 강조된다.

만덕 나쁜 놈! 아무리 상거래가 천한 직업이라고 하지만 같은 업자를 두고 해? 사실이 아니면 가만두지 않겠어.
객주 가만 안 두면 나한테 몸이라도 줄 건가?
만재 이런 뻔뻔스런 놈!
사또 (말리며) 그만, 판결은 내가 한다. 거짓말하는 자는 엄벌에 처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라.
형방 (들어오며)사또, 장부를 아무리 뒤져봐도 탈세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객주 그럴 리가 없어요. 조작된 걸 왜 못 찾아냈니까? 장부를 정직하게 적 으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뭐 있다고?⁶²⁾

그 외에 여타 작품들에서 만덕이 양민을 구휼하고 금강산을 구경하고 귀향하는 과정에서 작품을 끝맺는 것과 달리, 이 작품은 양민구휼장면에 서 끝을 맺고 뒷부분을 내레이션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르다.

오성찬의 작품 「넙더라, 그 여자의 치마폭 - 김만덕전」⁶³⁾ 역시 ‘만덕이 야기’를 희곡화 한 것으로 2004년 『제주도』에 실린 작품이다. 오성찬의 희곡은 채제공의 「만덕전」과 김봉옥의 「구원의 여인 김만덕」, 양중해의 「김만덕의 자선」⁶⁴⁾등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 김만덕 기념사업회의 부탁을 받아 작성⁶⁵⁾되었다. 이 때문에 전체 이야기 구성은 기존의 이야기

62) 위의 책, 190쪽.

63) 오성찬, 「넙더라, 그 여자의 치마폭 - 김만덕전」, 『제주도』 통권108호, 2004.

64) 양중해의 작품은 김만덕의 생애를 일괄하고 난후, 김만덕이 기녀가 되는 과정과 기적에서 벗어나는 과정, 상인으로 부를 축적하고 기민구휼에 나서는 과정을 소설형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65) “나는 여러해 전 서울에 있는 한인문화사엘 들렀다가 그곳 대표인 김양식 시인이 갖고 다니던 채제공이 쓴 그의 문집에서 「김만덕전」을 복사해 올 수 있었다. (...) 몇 해 전 김만덕기념사업회 회장직을 맡고 있던 한상수 여사로부터 희곡을

들과 흡사하다.

오성찬의 희곡은 '시인'을 내레이터로 하여 극이 진행된다. 또한, 기존의 만덕이야기에 등장하지 않거나 간과되어왔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만덕의 부모와 오라버니인 만덕과 만재, 만덕을 입양하여 기적에 오르게 한 홍매, 동냥아치 등이 그런 인물들이다. 특히 만덕을 기적에 오르게 한 홍매는 양중해의 「만덕전」에서는 '양매'로, 김창집의 「만덕전」과 정비석의 「제주 기 만덕」에는 '월중선'으로 등장했던 인물로 비교적 최근의 '만덕이야기'에 새롭게 첨가된 인물이다. 기존 작품들에서 '월중선'과 '양매'는 부모를 잃고 버려진 만덕을 데려다 기적에 올리는 인물로 '퇴기 출신' 정도의 언급이 전부였다. 그러나 오성찬의 희곡에서 '홍매'는 전형적인 모사꾼 악인으로 표현된다.

홍매 (혼잣소리)월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더니 저 애를 놓고 한 말 이라니까. 저 애를 데려다가 잘 기르지만 하면 틀림없이 온 심안을 올리는 명기가 될 것이야. 그때쯤이 면 나는 늙어 퇴기가 되겠지? 그러니 백년대계를 이제부터 튼튼히 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야. 요 아래 피기 잘 낚는 어부도 낚시질을 할 때 밑밥을 듬뿍듬뿍 뿌려두지 않던가.⁶⁶⁾

이처럼 홍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인의 딸인 만덕을 기녀로 만들어 버린다. 이와 같은 작품의 설정은 후일 만덕을 환속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설정은 당위성이 부족해 보인다. 그 때문에 만덕이 기적에서 환속 되는 과정 역시 부자연스럽다. 이 작품에서 특이한 것은 만덕이 상인으로 성공하기 위한 신념을 만드는 과정과 백성을 구휼하는 과정이 '선비'라는 인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선비 장사를 하되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이익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파는

써 줄 것을 제의 받았다. 희곡이 되면 연극을 올리기로 어느 극단과 약속도 되어 있었다." (위의 책, 246쪽.)

66) 위의 책, 250쪽.

것, 즉 박리다매지요. 이것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최종적으로는 그들 사이를 묶어 줍니다. 결과적으로 같이 잘 사는 것이지요. (...) 다음은 적절한 가격에 팔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정가매매지요. 사람도 그렇지만 모든 물건에는 다 그 나름의 가치가 있게 마련이에요. (...) 세 번째는 정직한 신용분위입니다.⁶⁷⁾

선비의 이 대사는 김봉옥의 「만덕전」에 나오는 부분⁶⁸⁾으로 김봉옥은 이를 만덕 스스로 세운 원칙으로 표현했다. 오성찬은 이를 선비의 대사로 바꾸어 만덕을 수동적 인물로 만든 것이다. 또한, 구휼의 과정에도 어김없이 선비가 등장한다.

만덕 그런데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 동안 고생한 덕분에 이제 밥이라도 먹게 되었고 여유도 없지는 않습니다. 현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할 지를 모르겠어요.

선비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덕은 베풀면 반드시 이웃들이 모여들게 마련이지요. 그리고 하늘이 재물을 내린 것은 그것을 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⁶⁹⁾

만덕을 수동적인 인물로 해석한 오성찬의 희곡은 기존 작품의 전형성에서는 탈피하고 있지만 ‘만덕’을 자의식이 부족한 인물로 만든 부정적 측면이 있다. 또한, 작품 곳곳에 등장하는 시인의 장황한 내레이션과 시문은 극의 흐름을 자주 끊어 오히려 역효과를 주고 있다. 이들 희곡 작품들은 ‘만덕이야기’를 매체 변환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가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매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물의 갈등보다 만덕의 행위에 중심을 놓은 기존의 ‘만덕이야기’를

67) 위의 책, 260쪽.

68) “만덕은 장사하는 데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이익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파는 것이요, 둘째, 적절한 가격 매매, 셋째 정직한 신용분위였다.”(김봉옥, 「만덕전」, 김만덕기념사업회, 『김만덕 자료 총서Ⅱ』, 123쪽.)

69) 오성찬, 앞의 책, 271쪽.

반복 재생산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3.5. 드라마

김만덕은 이미 1977년 「정화」라는 제목으로 드라마화되었다. 「정화」는 1977년 12월에서 1978년 8월까지 MBC를 통해 일일극으로 방송되었으며, 당시 제주출신 연기자인 고두심이 김만덕을 맡아 장안에 화제⁷⁰⁾를 낳기도 했다. 주연을 맡았던 고두심이 이 드라마를 통해 한국 연극·영화예술상 신인상을 수상하고, 1급 배우로 성장했다는 기사⁷¹⁾를 보면 당시 드라마의 인기를 추측할 수 있다.

김만덕은 2010년 3월 6일~2010년 6월 13일까지 「거상 김만덕」이란 제목으로 30부작 KBS 주말 드라마로 방영되었다. 특히 주연을 맡은 이미연에 대한 관심과 「정화」에서 김만덕 역을 했던 고두심이 '할매'에 캐스팅되면서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드라마 방영 전후를 기해 10여 종 이 넘는 소설과 만화들이 출간되면서 드라마의 성공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그러나 막상 드라마는 30부 내내 10% 초반대의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그저 그런 평작으로 종영되고 말았다.



<그림 3> 「거상 김만덕」 주요 인물

70) 「고두심 - 배역마다변신 천의 얼굴 매료」, 『경향신문』, 1993.4.16.

71) 「고두심, 한국 연극·영화예술상 신인상 수상」, TV週評, 『동아일보』, 1977.12.28.

「거상 김만덕」은 정창권의 소설과 마찬가지로 김만덕의 상인으로서의 면모에 집중한 작품이다. 제주읍성의 재래시장인 동문시장과 서문시장에서 서로 이권을 둘러싸고 암투를 벌이고 있다. 이에 김만덕은 악덕업자인 서문객주 강계만을 무너뜨리고 동문과 서문시장의 화합을 이끌며 거상으로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주된 플롯이다. 여기에 정홍수와 만덕, 문선의 삼각관계를 또 다른 흥미 요소로 삽입했다. 이야기는 <그림3>에서 만덕을 둘러싸고 그녀를 괴롭히는 강유지와 문선 그리고 만덕을 도와주는 할매와 정홍수 간의 대결이 중심을 이룬다. 여기에 다양한 조력자들과 적대자들이 등장하며 이야기에 흥미 요소를 추가시켰다. 이를 요약하면 <표3>과 같다.

	김만덕		서문객주 강계만
조력자	정홍수 동문객주 고석주 동아 백소래 덕팔 김판술	↔	강유지 문선 제주현감 최남구 오집사 김동주 김서주 호방

<표 3> 「거상 김만덕」의 인물 대결구도

<표3>의 동문시장과 서문시장을 둘러싼 대결구도를 통해 이 작품이 만화에서와 마찬가지로 극명한 대결구도를 중심으로 한 대중스토리텔링의 전형적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기에 매회 만덕을 둘러싼 서문객주 강계만과 그의 아들 강유지, 제주 현감 최남구 등이 쉴 새 없이 그녀를 괴롭히고 음모에 빠뜨린다. 이렇게 흥미진진한 구성에도 불구하고 「거상 김만덕」은 실패한 드라마로 평가된다. 이는 동시간대 방영되었던 이전의 KBS 역사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대조영」, 「무인시대」, 「천추태후」 등이 100회 이상의 방영횟수와 30%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

하며 사극 붐을 일으켰던 것에 크게 못 미치는 30부작, 10%대의 낮은 시청률로 종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거상 김만덕」이 나름의 대결구도와 흥미 요소를 가지고 대중스토리텔링의 전형에 충실하기는 했으나 새로움을 주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거상 김만덕」이 되풀이한 '위기-극복-위기-극복'의 반복적 구성방식은 이미 「대장금」, 「허준」 등의 사극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방식이며, 김만덕의 상행위 과정에서 벌어지는 음모와 투쟁 역시 이미 「상도」(MBC, 2001), 「영웅시대」(MBC, 2004), 「해신」(KBS, 2004) 등에서 반복된 것들이었다. 최근의 미디어들은 다양한 채널과 게임, 영화 등 풍부한 볼거리들과 경쟁해야 한다. 치열한 미디어 경쟁은 조금의 진부함도 허용치 않는다.

또 다른 실패 원인은 국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비교적 덜 알려진 '김만덕'이란 인물을 중심에 둔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드라마 대부분은 왕조중심이거나 난세 영웅 중심의 선 굵은 이야기들이었다. 민초의 삶을 다룬 시대극들 역시 「임꺽정」, 「상도」, 「추노」 등 대부분 남성 중심의 역동적 이야기였다. 이 때문에 '사극=남성드라마'라는 인식이 매우 강했다. 하지만 「거상 김만덕」은 왕조중심 사극도 아니고, 역동적인 이야기도 없이 희소한 여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야기였다. 이전에도 「명성황후」, 「천추태후」 등 여자 주인공을 내세운 드라마가 있었으나 대부분 왕실 중심 역사 드라마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대장금」 역시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 원인은 18세기 제주 거상이었던 김만덕을 다루면서 당시의 제주도 현실과 주변정황, 18세기 상인 계층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드라마에 담아내지 못한 것이다. 풍부한 서사 없이 단순한 대결구도만으로 만든 드라마라는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만덕을 개성있는 인물로 만들지 못하고 기존의 전형성을 반복한 것도 실패의 원인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해 보면 「거상 김만덕」의 실패는 스토리텔링의 측면에서 낮은 여성 주인공, 비(非) 왕실 중심의 사극, 역동성의 부족, 드라마 정체성 확립의 실패, 제주도라는 지역의 특색과 18세기 상인계층의 부각 실패, 주인

공의 전형성 반복 등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드라마 한편의 실패가 '만덕이야기'가 지닌 서사 전체의 실패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풍부한 서사와 치밀한 세계관, 당시의 역사적 상황 등 당대의 시대상황과 맞물린 다양한 서사구현에 문제가 있음은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지 않고는 '만덕이야기'가 본격적인 방송미디어로 가공되어 성공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만덕이야기'가 방송미디어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원작을 활용하여 성공한 드라마 「상도」와 「해신」의 성공과정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의 논의로 대신하고자 한다.

4. 김만덕 스토리텔링 활성화 방안

채제공의 「만덕전」이 지어질 당시, 만덕에 관한 문헌기록은 만덕의 제주 기민 구휼의 행적을 예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민구휼 행적보다 만덕의 기생 신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만덕이 양인신분을 회복하는 과정이 첨언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이는 채제공의 「만덕전」에 '만덕이 양인의 딸'로 기록된 데 의존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최초의 '만덕이야기'는 그녀의 행적을 칭송할 목적으로 지어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생'이라는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이야기로 초점이 옮겨진다. 신분사회였던 조선시대에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만덕의 이야기는 당시 피지배층에 있어서 흥미로운 이야기 일수밖에 없었다. 기민구휼에서 신분이동으로 초점이 옮겨지던 '만덕이야기'는 최근에 이르러 '상인 김만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개화기를 거치면서 제도적으로 신분사회가 붕괴되면서 만덕이야기 역시 흥미 요소 역시 변화한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밀려들기 시작한 서양문물과 상인계급의 성장이 변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가 공고화된 현대에 이르러 상인 김만덕의 모습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기도 하다. 최근의 '만덕이야기'가 『조선최초 여자거상 김만덕』⁷²⁾, 『제주거상 김만덕에 관한 연구』⁷³⁾ 등 거상으로서의 김

만덕에 초점을 두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만덕이야기의 이러한 변화는 만덕 이야기를 기록하는 작자의 취향일 수도 있겠으나, 큰 틀에서의 이야기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면 대중의 기호에 따라 이야기가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형적인 대중스토리텔링의 특징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초점 변화에도 불구하고 만덕이야기의 구조는 '신분극복-거상으로의 성장-기민구휼'이라는 행위중심 이야기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덕이야기가 소설, 만화, 드라마, 희곡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음에도 콘텐츠로 성공적인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행위중심 이야기구조의 한계 때문이다. 행위중심 이야기구조는 기존의 비교적 짧은 '진'형태나 아동대상의 단편소설에서는 효과를 가져왔을지 모르나, 개성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인물간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현대극에서는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대부분의 콘텐츠들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만덕이야기가 행위중심 이야기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만덕이야기의 행위중심 이야기구조를 인물간의 갈등 중심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대극에 어울리는 새로운 텍스트 구조로 만덕이야기를 재편해야 하는 것이다.

「상도」의 주인공 '임상옥'은 조선 후기 무역 상인으로 국경지대에서 인삼 무역권을 최초로 독점한 천재상인으로 알려졌으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드라마 「상도」는 2001년 10월 15일부터 2002년 4월 2일까지 30%를 웃도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상도」의 이러한 성공은 이 드라마의 원작인 최인호의 동명 소설 『상도』의 성공과 그 궤를 같이한다. 「상도」는 인기 작가인 최인호가 『한국일보』에 연재했던 작품으로 2000년 단행본으로 발매되어 300만 부가 넘는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셀러다. 이 같은 원작 소설의 인기에 힘입어 드라마의 성공도 가능했

72) 박산하, 앞의 책.

73) 송병식, 앞의 논문.

던 것이다. 최인호는 「불새」, 「도시의 사냥꾼」, 「별들의 고향」, 「깊고 푸른 밤」, 「겨울 나그네」 등 많은 작품들이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진 베스트셀러 작가 중 한 사람이다. 이런 그의 작품 「상도」를 드라마화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의 또 다른 소설 「해신」 역시 같은 과정을 통해 드라마로 만들어지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만덕 이야기’가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향유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이야기구조를 영상미디어로 변화시키는 것보다 대중소설을 통해 이야기구조를 인물의 갈등 중심으로 변화 시킨 이후 다른 미디어로 가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드라마나 영화의 제작비보다 소설로 만들었을 때 제작비가 저렴하다는 장점 이외에도, 무시할 수 없는 소설의 독자층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문 연재소설은 과거보다 그 효과는 줄어들었으나 폭넓은 독자층을 대상으로 작품을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또한, 소설화를 통해 독자반응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더 나은 작품을 영상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해신」과 「상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지자체나 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 신문 연재 지면을 확보하고 당대의 인기 작가를 통해 만덕이야기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한다면 상당한 홍보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인기 작가를 통한 상품의 작품화는 외국의 사례에서 이미 존재⁷⁴⁾한다.

현재도 ‘만덕이야기’가 소설화되고 있지만 기존의 행위 중심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 뿐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만덕이야기가 큰 틀에서 인물의 갈등중심으로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 대표적 인물이라는 한계도 작용한다. 이미 영웅화된 지역의 대표인물을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이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인 것이다. 이것이 대다수 만덕이야기를 활용한 작품들이 심노승의 『계심

74) “명품 보석과 시계로 유명한 불가리(BVLGARI)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페이 웰던(Fay Weldon)을 섭외하여 「불가리 커넥션」이란 제목의 소설을 발간했다. 이 소설의 표지에는 불가리 목걸이가 사진으로 나왔고 스토리 전개상 불가리 목걸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훈철 외, 『브랜드 스토리텔링의 기술』, 멘토르, 2008, 174~175쪽)

전』의 기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심노승의 기록은 기존의 전형성에서 탈피하여 새롭고 개성적인 만덕을 창출할 수 있는 역사적 문헌이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만덕’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서 창작자들의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만덕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의 문헌기록이다. 이후 채제공이 「만덕전」을 지어 만덕에게 주면서 본격적인 만덕이야기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전(傳)의 특성상 채제공의 기록은 사실과 허구가 결합되어 있어 문헌에 나타난 내용 모두를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 이후 지어진 대다수의 전들 역시 채제공의 기록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것들로 추정된다. 후일 만들어진 김태능, 김봉옥, 양중해의 「만덕전」은 조금씩 내용이 첨언되면서 채제공의 「만덕전」을 보강하는 정도에 그친다. 이 과정에서 양중해는 만덕이 내의원 행수의녀에 임명된 것이 그녀를 각별히 보살피고자 한 정조의 뜻임에도, 평민으로서는 임금을 배알할 수 없으므로 만덕에게 예절할 수 있게 하는 조치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 기록 대부분이 만덕의 기민구휼이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천편일률적인 찬양일색으로 만덕의 생애 전체를 미화하고, 영웅화하고 있으며, ‘기녀신분의 극복-거상으로의 성장-기민구휼’이라는 이야기의 전형을 만들어 놓았다. 이 전형에서 벗어난 심노승의 『계섬전』은 이미 만들어진 만덕이야기의 전형 때문인지 창작자들의 손에서도 철저하게 외면 받고 있다. 그 결과 정비석의 소설 「제주기 만덕」에서부터 최근 윤수빈의 『조선의 여성상인 김만덕』까지 만덕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소설로 창작되면서도 과거의 행위중심 이야기 구조를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소설의 창작자들이 특별한 고민 없이 기존의 만덕이야기를 기계적으로 반복, 재생산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소설에서의 이 같은 반복은 만화나 희곡, 드라마 등으로 콘텐츠가 변모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과거에는 '기녀 신분의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거상으로의 성장'과정으로 이야기의 초점이 변화하고 있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콘텐츠의 종류는 변화하고 있지만 기존의 만덕 이야기가 지닌 행위 중심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 재생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상업적으로 성공한 작품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가장 대중적인 콘텐츠라 할 수 있는 TV드라마 「거상 김만덕」이 10% 초반대의 낮은 시청률로 고전 끝에 종영된 것도 오랫동안 반복 재생산되던 만덕이야기의 허술한 구조를 그대로 답습한 탓이 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김만덕을 스토리텔링하기 위해 김만덕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드라마 「거상 김만덕」처럼 실패한 드라마를 만들지 않으려면 '만덕이야기'의 뼈대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 만덕이야기가 지니고 있는 만덕의 업적이나 행위중심에서 벗어나 역사속의 김만덕, 당 시대 제주 속의 김만덕, 18세기 전반이라는 시대 상황 속의 김만덕, 인간 김만덕을 보다 치밀하게 재현하는 데 중점을 뒀야 한다. 기존 만덕이야기가 지닌 찬양 일색의 교훈적 내용과 허술한 이야기구조에서 벗어나 인물 갈등 중심으로 이야기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또한 친편일률적으로 전형화된 만덕을 보다 개성적인 인물로 변화시키기 위해 심노승의 기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단체나 기관이 나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작가를 통해 만덕이야기를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최인호의 「상도」와 「해신」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대중적으로 성공한 원작을 미디어로 재가공해 성공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지금부터라도 만덕이야기의 대중스토리텔링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것인지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핵심어: 김만덕, 만덕이야기, 만덕전, 채제공, 심노승, 스토리텔링, 콘텐츠, 드라마, 만화

<참고문헌>

- 강용준, 『파도에 길을 묻다』, 지성의 샘, 2007.
- 곽정식, 「전문학의 장르적 성격과 소설적 한계」, 『새얼어문논집』 제4집, 새얼어문학회, 1988, 215~230쪽.
- 김만덕기념사업회, 『김만덕 자료 총서Ⅱ』, 도서출판 각, 2008.
- 김만덕기념사업회, 『은광연세』, 도서출판 각, 2007.
- 김영진, 「효전 심노승 문학연구-산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훈철 외, 『브랜드 스토리텔링의 기술』, 멘토르, 2008.
- 문순덕·박찬식, 「추모 200주기 기념 김만덕 재조명」, 제주발전연구원, 2010.
- 박산하, 『조선최조 여자거상 김만덕』, 주니어김영사, 2010.
- 송병식, 「제주거상 김만덕에 관한연구」, 『경영논집』 제40권 제1/2호, 서울대학교경영연구소, 2006, 213~231쪽.
- 손달레, 「아름다운 삶의 여정: 물 플란더즈와 김만덕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14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8, 173~191쪽.
- 오성찬, 「넓더라, 그 여자의 치마폭 - 김만덕전」, 『제주도』 통권108호, 2004.
- 윤수민, 『김만덕-조선의 여성상인』, 창해, 2009.
- 이창훈, 『소설의 만화 변용 양상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 정창권,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되어 날아가리』, 푸른숲, 2006.
- 「널리 덕을 베푼 여인 만덕」, 『좋은생각』, 2004년 9월호.
- 최혜실 외, 『문화산업과 스토리텔링』, 다홀미디어, 2008.
- 현승환, 「실존인물 김만덕의 문학화 과정」, 『백록어문』 20·21집, 2005, 39~73쪽.
- 경주김씨 익화군 제주파 십오세손 입도조 검용공 십사세손 석우조문중회, 『경주김씨 익화군 제주파족보 1권』, 1995.
- 「고두심 - 배역마다변신 천의 얼굴 매료」, 『경향신문』, 1993.4.16.
- 「고두심, 한국 연극·영화예술상 신인상 수상」, TV週評, 『동아일보』, 1977.12.28.

<Abstracts>

A Study on Kim Man deok Storytelling

Lee Chang-hoon

The first record on Man deok is found in the texts of 『Seungjeongwonilgi』 and 『Ilseongrok』. Later, Chae Jae gong wrote 『Mandeokjeon』 and gave it to Man deok, and as a result, the full story of Man deok was created. The first 'Man deok Story' was created with the object of praising her life, but over the lapse of time, the focus of the story was moved to the effort of a person named 'Man deok' to overcome her social standing as a 'gisaeng.' This is closely linked to the historical situation in those days. In the Chosun Dynasty that was a stratified society, it was almost impossible to overcome the barrier between classes. In this situation, Man deok's story, which overturned the common idea, was naturally interesting to the ruled class. King Jeongjo spread the story widely and utilized it actively as a tool of his governing.

The focus of interest in Man deok's story was 'the relief of starved people' at the beginning but was moved to 'social mobility,' and recently, people's interest has been changed to Man deok's business talents. This reflects today's trend sensitive to 'economy.' In this way, Man deok's story is changing in response to historical situation.

Fortunately,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spread Kim Man deok's story mainly through the Kim Man deok Memorial Foundation. As evidenced by the failure of KBS Drama <Merchant Kim Man deok>, however, it is hard to create an

excellent work from fictions having a shabby story structure based on Kim Man deok's accomplishments or acts. It is because such fictions do not reproduce elaborately Kim Man deok in Jeju during her days, Kim Man deok in the historical situation of the early 18th century, and human Kim Man deok.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for relevant organizations or institutions to have Man deok's story restructured by a writer highly recognized by people. Not to mention 『Sangdo』 and 『Haesin』 written by Choi In ho, there are many cases that highly popular original works were reproduced successfully into media. Thus, we need to start new discussions on desirable directions for the storytelling of Man deok's story in a way of appealing to people.

- Key words: Kim ManDuk, Manduk Story, ChaeJe Gong, Sim Nosung, Storytelling, Contents, Drama, Manhwa

* 이 논문은 2011년 7월 18일 투고되었고, 8월 8일 심사 완료되어 8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